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듣고 사유하고 관찰하라. 새는 그릇은 채워지지 않는다. '보리행경 제1권'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6월 28일) · 주간

대표단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1호 2012년 8월 15일 수요일

## “과거 만행 사죄합니다” 日불교 참회비 세워진다

### ‘동국사지원모임’ 9월 16일 군산서 ‘참사문’ 碑 제막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과 일본불교 종단 조동종이 저지른 과오를 참회하는 내용의 비문이 한국에 세워진다.

군산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 회장 이치노베 쇼고 스님은 본지와외의 광복 67주년 특집인터뷰에서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은 오는 9월 16일 한국 유일 일본식 사찰로 잘 알려진 동국사(주지 종명)에서 일본 조동종의 전후(戰後) 참회가 담긴 ‘참사문(懺謝文) 비’를 제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한 동지회 회장 이치노베 쇼고 스님이 군산 동국사에 세워질 참사문비 제작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가로 2m, 세로 1.8m로 세워지는 ‘참사문 비’는 기단은 연화문으로 장식되며, 비 왼쪽은 일본어 원문이, 오른쪽에는 한국어 번역문으로 채워진다. 이 같은 ‘참사문 비’는 지난 3월 동국사 총무 종길 스님(군산 성불사 주지)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처음 제안됐으며,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이하 동지회)에서 일본 불교의 과오를 참회하는 차원에서 건립비용을 흔쾌히 전액 지불했다. 이후 모임회장 이치노베 쇼고 스님은 한국을 오가며 비문 제작을 살피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 일본 조동종 발표한 ‘참사문’ 20년만에 한국어 비문으로 종단 과오에 절절하게 참회 역사 갈등 해결 초석 되길

세속적 법률에 예측시키고 나아가 타민족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침탈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참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본 조동종의 사죄는 2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한일 양국 불교의 협력 아래 군산 동국사에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번 ‘참사문 비’ 건립에 대해 종길 스님은 “조동종의 참사문은 그간 일본 정부가 보여준 정치적인 유감 표명과는 그 결이 다르다. 2차 대전 시기 아시아 국가들을 침탈하는데 일조한 종단의 잘못을 참회하고 있다”며 “정부들도 풀지 못하는 역사의 갈등을 한일 양국 불교계가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비문 건립으로 한일 갈등과 불교 교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불교 사회운동은 연구해 온 유정길 前 예코부터 대표도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일본식 사찰 동국사에 일본 조동종의 참사문이 비문으로 형상화되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어 “불법을 국가 정책이라는

### 참사문 (참회와 사죄의 글)

우리 조동종은 명치유신 이후 태평양 전쟁 패전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해외포교라는 미명 하에 당시의 정치권력이 자행한 아시아 지배 야욕에 가담하거나 영합하여 수많은 아시아인들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 (중략)

특히 한반도에서 일본은 명성황후 시해라는 폭거를 범했으며 조선을 종속시키려 했고, 결국 한국을 강점함으로써 하나의 국가와 민족을 말살해 버렸는데, 우리 종문은 그 침범이 되어 한민족의 일본 동화를 획책하고 황민화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가 되었다. (중략)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사상이나 신앙을 초월해 훨씬 엄숙하다.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맹세한다.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그리고 과거 일본의 억압 때문에 고통을 받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깊이 사죄하면서 권력에 편승하여 가해자 입장에서 포교했던 조동종 해외 전도의 과오를 진심으로 사죄하는 바이다.

1992년 11월 20일 조동종 중무총장 大竹彦彦



### 사찰에서 즐거운 여름방학을

여름방학을 맞아 불교계 어린이·청소년 관련 단체 및 각 지역 사찰에서는 이색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대구 동화사는 7월 30일~8월 1일, 8월 2~4일, 8월 10~12일 3차례에 걸쳐 ‘달마야 놀자’ 어린이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다. 수련회는 팀별 게임, 운력, 동화사 탐방, 물놀이, 3도1배, 즉문즉설, 소원지 작성, 무모님 선을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사진은 참가자 학생들이 동화사 경내 다보탑을 둘러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기사5면

대구 동화사는 7월 30일~8월 1일, 8월 2~4일, 8월 10~12일 3차례에 걸쳐 ‘달마야 놀자’ 어린이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다. 수련회는 팀별 게임, 운력, 동화사 탐방, 물놀이, 3도1배, 즉문즉설, 소원지 작성, 무모님 선을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사진은 참가자 학생들이 동화사 경내 다보탑을 둘러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기사5면

## 상반기 출판 키워드 ‘힐링’과 ‘치유’

### 마음·명상 관련 번역서 잇따라 출간 독서로 상처치유 간접 경험 인기 원인

책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올 상반기 지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출판계의 대세는 국내의 힐링 관련 에세이들이다.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취업난에 찌든 20대부터 불황에 고개 숙인 40대까지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책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여름휴가의 최대성수기인 8월 첫째주 베스트셀러 20위권 내에 스님들의 힐링 에세이 4권이 올랐다. 지난 주 안철수 열풍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준 헤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2위를 유지했다.

스님들의 에세이가 몇달째 베스트셀러 순위서 밀리지 않는 이유는 책에 담긴 ‘힐링’ 메시지에서 찾을 수 있다. 최세라 예스24 도서팀장은 “지난 4월, 5월에 ‘두드림’ ‘힐링캠프’ 등 “방송을 통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여줘 현실에 지치고 삶이 답답한 독자들이 관련 책을 찾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힐링 열풍은 해외번역물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음 치유와 관련된 명상 번역서들이 잇따라 출간돼 역시 인기 몰이에 한

몫을 거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계 불광출판사가 펴낸 ‘받아들임’이다. 미국의 저명한 불교명상학자인 타라브레이크이 책은 근본적 수용이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상담 사례를 통해 보여줘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 ‘힐링바람’ 당분간 계속될 듯 해외 불교 명사가 저서 주목 국내 스님 책 4권 베스트셀러

책이 나오지 채 석달 밖에 안됐지만 벌써 2만부가 팔려 나가는 기록을 수립하며 베스트셀러 대열에 일찌감치 합류했다.

불광출판사 김명환 부장은 “누구든지 한 번쯤 겪었을 법한 보편적 사례들이 소개되기 때문에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자기 자신의 상처를 만나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부장은 “힐링 바람은 하반기에도 계속 될 가능성이 높아 불광에

### 힐링 관련 해외 번역서

도서명	저자	출판사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데이비드 해밀턴	불광
명상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비산트 조시	물병자리
받아들임	타라브레이크	불광
놓아버리기	아잔브람	공리
헤드스페이스	앤디퍼디컴	불광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버나드	문학의 숲
성년물소 놓아주기	아잔 브라흐마	공감의 기쁨
마음길들이기	제프리홀킨스	이슬
콰이어트	수전 케인	랜덤하우스
내가 알고 있는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토네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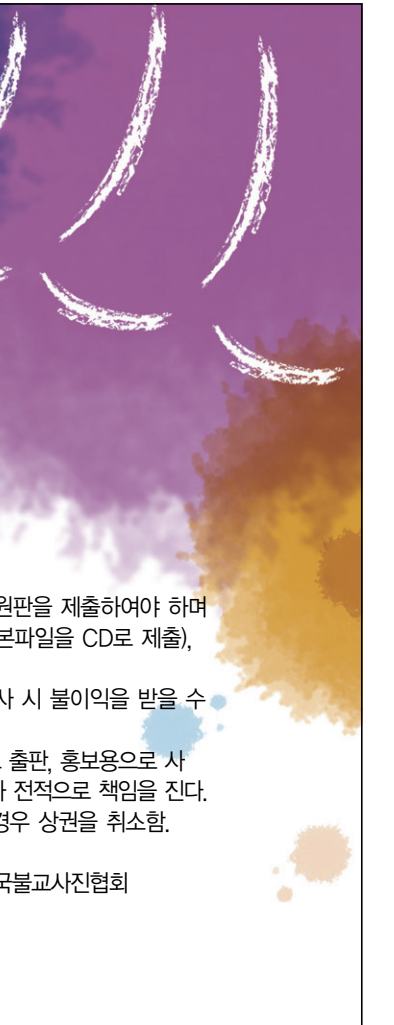
서도 관련 도서를 계속 출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번역서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명상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놓아버리기’ ‘헤드스페이스’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콰이어트’ ‘성년물소 놓아주기’ ‘마음길들이기’ 등 10여권이 넘는다. 이중 ‘받아들임’ ‘성년물소 놓아주기’ ‘놓아버리기’ 등은 불서총판 운주사가 집게한 불서베스트10에 한 달 이상 올라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연세대 심리학 과 교수는 “성공에만 매달리는 치열한 일상, 초조함을 버리고 차분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마음 치유가 주목받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독자들들도 힐링 관련 책들을 많이 찾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주일 기자

### 901호 INDEX

종합	2
외국인 사찰 방문객 실태조사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6·17
김원수 바른법연구회 원장	
해의불교	18
멋지도자들, 불교의식 참가 눈길	
문화	20
불혹 ‘남자의 여행’展	
여름방학 특집	27
청소년 미디어 다이어트	



## 불교사진공모전 제2회 천태종

### 응모내용

**공모주제** 불교 관련 소재(미공 양측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작)  
**참가자격** 전국 사진 애호가  
**접수기간** 2012년 6월 1일 ~ 10월 5일(당일 소인 유료)  
**작품규격** 가. ① 슬라이드 필름 : 컬러 및 흑백 사진 11" x 14" (장정불요) ② 디지털카메라 : 최소 3024 x 2016 픽셀(5M가이상, JPG파일)  
**접수방법** 나. 출품수 : 1인당 3점 이내  
 작품 뒷면 또는 이메일에 화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를 기입한 출품표를 부착해 우편 또는 이메일(ggbn@ggbn.co.kr) 접수  
 주소 : 110-776 서울시 중로구 경운동 89-4 SK허브 오피스텔 102동 307호 (02-723-1548)  
**심사발표** 2012년 10월 초 · 중순 대한불교천태종(www.cheontae.org)과 금강신문(www.ggbn.co.kr) 홈페이지 및 지면

### 시상내역

**금상(1점)**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상패 및 상금 300만원(4점 부여)  
**은상(2점)** 상패 및 상금 각 200만원(3점 부여)  
**동상(3점)** 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2점 부여)  
**가작(5점)**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이하 2점 부여)  
**장려상(5점)** 출품수가 8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입선** 입상작 포함 출품작 수의 20% 이내

### 수상작 전시

**일시** 2012년 10월 24일~30일  
**장소** 서울 인사동 덕원갤러리 4·5층(인사동 사거리 위치)

### 기타 유의 사항

- 금·은·동상 입상자는 심사 발표 후 7일 이내에 작품 원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름 원판, 디지털 작품은 3024x2016픽셀 이상의 원본파일을 CD로 제출), 미 제출시는 상권을 취소함.  
 - 디지털 합성 또는 과도한 포토샵으로 작업한 사진은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선 이상의 작품은 대한불교천태종에 저작권이 귀속되고 출판,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출품작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기발표작, 유사작 및 동일작을 출품하여 입상·입선될 경우 상권을 취소함.  
 주최 : 대한불교천태종 | 주관 :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 한국불교사진협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금강신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자세한 내용은 대한불교천태종, 금강신문 홈페이지 참조